01 교회소식

만민위에 뛰어난 제단

전 세계 1만여 지·협력교회 성도들이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과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02 생명의 말씀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성도들을 들이시고자 회개, 깨달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03 인터뷰

주님 사랑이 느껴지는 교회

우리 교회 창립 3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해외 17개국에서 방문한 손님들의 만민중앙교회 방문 소감과 간증.

04 화 보

창립 31주년 축하 공연

새 예루살렘 목자 성에 있는 계절 동산, 꽃의 동산, 눈의 동산, 놀이 동산, 바닷속, 오솔길 등 천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만민뉴스

제604호 2013년 10월 20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감동의 창립 31주년 기념예배와 축하 공연

1

2

3

4

5

6

7

8

9

10

우리 교회가 창립 31주년을 맞아 특별히 준비한 전야제 행사와 기념예배 및 축하 공연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10월 11일 금요철야예배 시에는 전야제 행사를, 13일 주일예배 시에는 GCN 생방송으로 전 세계 1만여 지·협력교회가 함께하는 가운데 기념예배와 축하 공연을 드렸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주일 대예배와 저녁 기념예배를 통해 '새 예루살렘'(계 21:10~11)이라는 제목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만민 성도들을 들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은혜를 세 가지 측면에서 증거했다(사진 1). 성령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도우심 가운데 회개의 은혜, 말씀을 마음 중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죄를 벼릴 수 있는 능력 곧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전했다(관련 기사 2면).

오후 3시 저녁 기념예배 시에는 설교 후 '새 예루살렘 목자의 성 2'라는 제목의 축하 공연이 있었다(사진 3). 예능위원회 주관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공연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찬양으로 기획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더욱 넘쳐났다.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목자의 성에서 행복과 신비로움을 느끼는 시간이었다(관련 화보 4면).

미국 영적외교단체 회장 모글리스 박사는 "공연은 매우 프로페셔널 했고, 대단했습니다. 주님께서 공연을 준비한 모든 분께 높은 수준의 예술적인 삶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를 통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과 주님의 참 사랑, 이재록 박사님의 진실한 마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사진 2).

공연 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역사되는 것을 보며 믿음이 날로 장성했고, 많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께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영광 돌려 나가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진행 중인 여섯 번째 성전 가나안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국내외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했다.

이날 예배와 행사에는 미국, 이스라엘, 불가리아, 멕시코, 케냐 등 해외 17개국에서 참석했으며, 국내외 기독 언론인들과 교계 및 정·관계 인사, WCDN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해 주었다(사진 6, 7). 또한 교회 야외에는 초대받은 일가친척과 성도들을 위한 다양한 먹거리와 기념사진 촬영소가 마련돼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사진 8, 9, 10).

한편, 금요철야예배 2부 시에는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축하 공연이 있었다. 한국 전통 무용과 연주, 닛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다양하게 권능을 표현했다. 31년 동안 축복 속에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축하 행사를 가진 후 끝으로 한주경 찬양선교사와 함께 '믿음으로 걸어온 길 3', '권능 2', '앞으로'를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사진 4, 5).

당회장 이재록 목사

새 예루살렘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요한계시록 21:10~11)

새 예루살렘은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자녀들이 장차 영원히 거할 처소입니다. 무수한 영혼이 합당한 자격을 얻어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만민중앙교회가 그려온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로 이뤄지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회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지난날의 죄를 마음 중심으로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됐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마음 중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했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회개의 은혜를 입기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내가 왜 죄인이란 말인가? 나보다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내가 죄인이라 하는가?' 하는 생각을 전염병처럼 퍼뜨리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자고하며' 말씀대로 많은 사람이 은연중에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즉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싫어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죄의 홍수는 교회의 문턱까지 넘어서서 성도들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흐름 속에서 교회와 목회자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도록, 또한 죄에 물든 성도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끌어 내려야 합니다. 과연 무엇으로 끌어 내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가 대신 무릎 꿇어 간구함으로, 희생함으로써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대신 겸비하게 중보할 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요. 즉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내려주십니다. 사랑의 희생을 합당한 분량만큼 쌓아야 이런 은혜가 주어지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성도들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금 죄악 길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경우에는 공의에 지나도록 엄청난 희생을 쌓아야 합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 그 공의를 채우기 위해 제 모든 삶을 걸고 간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간구는 열 명 남짓의 성도를 맡은 교회 개척 때부터 수백만 성도의 목자가 된 지금까지 계속됐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성도들에게 기적 같은 회개의 은혜를 여러 차례 부어 주셨습니다. 저는 세상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이 간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는,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와가 건네는 선악과를 받아먹고 말았습니다. 불순종 곧 죄가 어떤 것인지 마음으로 깨달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죄가 나쁘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절절히 깨달은 것은 다릅니다. 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이 얼마나 좋은지를 마음으로 깨달아야 범사에 악을 택하지 않고 선을 택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죄와 선에 대해 스스로 깨닫기까지 참으로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밭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듯이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각종 예배와 교육을 통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쉼 없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이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 죄를 벗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이뤄나가며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을 받을 날을 소망하는 알곡들로 성장했지요. 더 나아가 믿음의 선진들의 선 곧 최고의 선을 이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문은 이미 세계 만민을 향해 넓게 열려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문서 사역'입니다. 2013년 10월 현재까지 영적 깨달음을 주는 보석같은 말씀을 375권의 책에 58개 언어로 담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 단말기 시대에 대응해 45개 언어로 262종의 전자책을 발간해 독자들을 부지런히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독자는 물론 출판사들의 반응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또 GCN 방송을 통해 설교와 세미나 등 다채로운 말씀 프로그램을 꾸준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GCN 방송은 위성, 케이블, 공중파, 인터넷 등의 매체를 가진 170여 개국 4천여 개 방송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구 전 대륙을 커버하고 있지요. GCN 방송에서 공급되는 말씀을 통해 세계의 수많은 지·협력 교회와 시청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주께로 나아왔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매일 밤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사람이 영적인 귀와 눈이 심히 어두워져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계 만민이 영적인 귀와 눈을 열어 진리를 깨닫고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셋째는,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좇았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 앞에 그만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지요. 이처럼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막 9:23)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뤄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었으며, 부와 명예와 권세와 세속의 즐거움을 분토처럼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을 얻게 됐습니다. 만민의 성도들은 이 힘을 공급받기 위해 매일 밤 깨어 기도합니다. 세상이 환락을 취하는 시간에 우리 성도들은 수천 명씩 성전에 모여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입고 있지요. 또 충만한 찬양을 통해 은혜와 위로와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특히 삶 속에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 기사와 표적과 치료의 역사들을 체험함으로써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성도들로 성장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죄를 버리며 진리를 행하고 있지요. 이 권능에 대한 소문은 국경과 대륙을 넘어 세계로 전파됐고, 세계 속의 만민을 이 제단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 예로 만민하계수련회는 세계인의 '권능 축제'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맞춤형 날씨, 친근한 잠자리 떼의 출현, 신비롭고 아름다운 오로라 빛의 향연,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 등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며 진리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새 예루살렘을 침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만민은 세계를 향해, 미래를 향해, 하나님 섭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더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에 세계 만민과 함께 이를 것입니다. 그날까지 만민중앙교회를 통해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금요철야: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1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바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 된 만민중앙교회에서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교회 창립 31주년을 맞아 해외에서 참석한 이들의 간증을 들어본다.

“목자가 양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지바 솔로몬 라지 목사 | 스리랑카 만국교회 당회장

저는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기에 우상숭배자들을 위한 복음전파에 대한 마음이 남다릅니다. 친구 니샨 쿠레이 목사 소개로 만민중앙교회를 알게 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적으로 밝히 풀어 가르치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저는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해 목자가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할지를 깨우쳤습니다. 이재록 목사님의 영혼에 대한 사랑과 겸손은 제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사랑을 느낀 성도님들은 이재록 목사님을 마음 중심에서 따르며 섬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그 외에도 밝고 깨끗한 성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성결하고자 힘쓰는 성도님들의 모습 등 모든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하나님 권능으로 바닷가의 짠물이 단물로 된 무안단물터를 방문했을 때는 놀랍게도 무릎 관절염을 치료받는 체험을 했습니다. 통증 때문에 무릎을 꿇지 못했는데 이제 활동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축하공연은 매우 흥미롭고 프로페셔널 했습니다”

류브카 탄체바 박사 | 불가리아 과학 아카데미 정신약리학 부교수

만민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제게 놀라운 경험이었고, 지극히 성경적이기에 영적으로 최고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당회장님과 성도님들이 서로 존중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바쁜 일정 중에도 저희를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친절과 겸손으로 섬기시는 당회장님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지요.

창립 축하 공연은 매우 흥미롭고 프로페셔널 했습니다. 영적 수준이 매우 우수했고, 성령님은 제게 매우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공연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젊은이들의 열정과 헌신에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들로 만들어진 공연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 펼쳐진 것이었지요.

권능의 무안단물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을 통해 성결한 삶을 보았습니다”

아넬 과다라마 빠레스 박사 | 멕시코 소아외과 전문의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WCDN(세계기독의사네트워크) 콘퍼런스에 참석한 저는 성령의 역사로 치유된 사례를 보며 매우 감격했습니다. 그 후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지요. 이번에 방문한 것은 사실 성결한 삶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인지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예배와 기도의 마음가짐과 자세, 섬김과 배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성결한 삶에 대해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립 31주년 축하공연을 볼 때는 마치 천국에 있는 듯했습니다. 조명과 의상, 소품 모든 것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더해 주며 천국 소망으로 넘쳐났지요. 또한 무안단물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들과 해수어와 담수어가 공존하는 수족관 등을 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매일 밤 열리는 다니엘철야 기도회와 금요철야예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늦은 밤과 새벽임에도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지요. 저는 섬기는 교회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성결의 복음을 전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찹니다.

“고산족 라후족이 성결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나나니콤 까셍 목사 | 태국 니란 만민교회 담임

태국 치앙라이 만민교회 워라퐁 목사를 통해 만민의 사역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 태국어판 『십자가의 도』, 『천국』, 『지옥』 등을 고산족인 라후족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담긴 비밀한 내용들을 영적으로 쉽게 풀이해 주셔서 번역하면서도 큰 감동을 받았지요.

또한 미얀마와 라오스 라후족들에게 이 성결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온 한 라후족 사람이 우연히 ‘십자가의 도’ 내용이 담긴 복사본 책을 읽고 은혜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금은 여러 곳에서 요청을 받아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지요.

저는 매일 밤 기도회를 열고, 예배 시 성도들에게 성결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기 힘쓰며 예배와 찬양, 기도가 충만합니다. 몸이 아프면 무당을 찾던 성도들이 무당집에 발길을 끊고 약도 복용하지 않는 등 믿음으로 치료받고 있지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당회장님께서 출판하신 신앙서적 전권을 번역해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라후족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벽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1 운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홍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56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42)841-0091, 010-7195-1099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월피동508-1 ☎031)485-9143,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

교회 창립 31주년 축하공연

'새 예루살렘 목자의 성 2'가 우리 교회 본당 특설무대에서 있었다.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예능팀과 성가대, 닛시오케스트라를 비롯해
공연 전문 외부 스태프 등 총 4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공연은
이 땅에서 느끼지 못한 기쁨과 행복, 신비로움과 진한 사랑의 향을 느낄 수 있었다.

천사장 찬양

찬양천사장의 천국 언어로
올려드리는 감동의 찬양과
무용천사장의 아름다운 무용으로
축하공연의 막을 열었다.

계절 동산

새 예루살렘 목자의 성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여러 동산을 소개했다.

꽃의 동산

목자의 성 안에서 아름답고
신비로운 향을 발하는 꽃들과
더불어 봄을 만끽할 수 있다.

눈의 동산

목자의 성 안에 있는
눈의 동산에 가면 겨울 눈을
맞으며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나눌 수 있다.

놀이동산

목자의 성 안에 있는
흥겹고 재미있는
놀이동산을 표현했다.

바닷속

신비롭고 아름다운
바닷속에 들어가면 자유롭게
풍경을 즐기며 물고기들과
사랑도 나눌 수 있다.

오솔길

이 땅에서 경작받던 때를
회상하며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오솔길을 표현했다.

목자의 성

사랑하는 성도들을
목자의 성에 초대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찬양으로 영광 돌린다.

GCN방송이 가을개편을 맞아
새롭게 찾아갑니다!

GCN 방송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3.10.20~10.26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천국 34~38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11~15
- 성령의 9가지 열매 1~5
- 십자가의 도 9~13
- 공부잘하는 비결 1~5
- 새예루살렘 1

GCN TV설교
- 내가 시행하리니 16 (이수진 목사)
- 빛을 발하는 성전 (이희진 목사)
- 믿음의 분량 2 (신동초 목사)
-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김자재 교육전도사)
-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박형배 형제)
- 'GCN TV특강' -십자가의 도 3,4 (정구영 목사)

New 신규 프로그램
- 영의 세계 2 (이희선 목사)
- 생명수 2 (신동초 목사)
- 몸도튼튼 마음도 튼튼 2 (도유리 집사)
- English 2 (도유정 집사)
- 알콩달콩 어여쁜 율동 2 (한동식 집사/유신아 집사)
- 찬양 드려요 2 (한주경 찬양선교사)
- 향기 2 (이진 집사 • 아름다운 예배 2 (김정희 권사)
- 플로리스트 2 (양미경 권사)

찬양 프로그램
- 찬양과 경배(3) 62, 64~66, 71, 84
- GCN 금요찬양 스페셜 5~10
- 만민찬양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